

제당 3사 '15년간 설탕값 담합'

CJ·삼양사·대한제당, 출고량·가격 조정 막대한 차익 공정위 511억 과징금... '자진신고' CJ 고발 면제 논란

대표적인 서민 생필품종 하나인 설탕을 제조하는 CJ와 삼양사, 대한제당 등 3개사가 지난 1991년부터 무려 15년간 출고량과 가격을 담합해 막대한 차익을 부당하게 챙긴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CJ는 지난해 밀가루와 세제에 이어 설탕 담합까지 적발돼 3개 생필품 담합에 모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으나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등을 통해 고발은 모두 면제돼 논란이 일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CJ와 삼양사, 대한제당 등 국내 3개 설탕업체들이 지난 1991년부터 2005년 9월까지 제품 출

고량과 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총 511억3천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삼양사, 대한제당 등 2개사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CJ가 227억6천300만원, 삼양사는 180억200만원, 대한제당이 103억6천800만원이다.

이중 CJ는 조사과정에서 담합사실을 자진 신고해 고발을 면했으며 과징금도 50% 감면 받았다.

이들 3개사의 관련제품 매출액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간 2조6천

억원에 이른다. 관련 매출액의 15~20%를 소비자 피해액으로 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을 적용할 경우 소비자들에게 수천억원에서 많게는 1조원 이상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추정된다.

조사결과 이들 3개사는 1990년 말 각사 영업본부장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이듬해 원당 수입자유화를 앞두고 경쟁이 치열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CJ 48.1%, 삼양사 32.4%, 대한제당 19.5% 등으로 내수시장의 물량반출 규모를 정한 뒤 매

년 초 또는 매월 각사 임직원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어 수요에 따라 조정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특히 합의 준수실적을 확인하기 위해 1999년 말까지는 특별서비스 납부 실적을 교환했으며, 설탕의 특수제가 폐지된 2000년부터는 매달 출고 실적 자료를 주고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연합뉴스



기업 과징금 1조원 넘었다 올들어서만도 3,300억 사상 최대 규모

공정거래위원회가 석유화학업체와 정유사들의 담합 등 대형 담합사건을 잇따라 적발하면서 올해 담합행위에 부과한 과징금 규모가 사상 최대규모를 기록

했고 누계금액도 1조원을 넘었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올들어 공정위가 기업의 담합행위를 적발해 부과한 과징금 규모는 총 3천294억2천900만원(전

연회의 합의기준)으로, 작년 1년간 부과한 1천105억4천800만원의 3배에 육박했다.

올해 과징금 규모는 그동안 사상 최대였던 지난 2005년 2천493억2천600만원보다도 32.1%나 많은 것이다. 담합 뿐 아니라 모든 불공정행위를 통틀어 공정위가 그동안 부과했던 연간 과징금 규모와 비교해도 가장 많다.

공정위가 부과한 담합 과징금 규모는

사건 처리실적에 따라 연도별로 편차가 있으나 지난 1999년까지 연간 100억~300억원대 수준을 보이다 2000년 1988억원으로 늘어났으며 2003년 1천98억원, 2005년 2천493억원 등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지난 1988년 이래 최근까지 공정위가 담합행위에 대해 부과한 과징금의 총 누계금액은 1조1천916억3천800만원에 달해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연합뉴스

수출 채산성 '끝없는 추락' 1분기 전년동기비 0.3% 감소 10분기 연속 악화

수출기업의 채산성이 끝없이 하락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원장 현오석)은 올해 1~4분기 수출채산성이 작년 같은 분기대비 0.3% 감소해 2004년 4~4분기 이후 10분기 연속 악화됐다고 22일 밝혔다.

수출채산성은 수출제품 단위당 벌어들인 이익을 나타내는 수익성 지표로, 2000년을 기준으로 100으로 했을 때의 원화표시 수출가격지수를 수출생산비용지수로 나눠 산출한다. 따라서 수출채산성은 원화표시 수출가격이 상승할수록, 수출비용이 하락할수록 좋아진다.

올해 1~4분기 수출가격 지수는 84.4로 작년 동기의 83.2에 비해 1.4% 상승해 9분기 만에 처음으로 상승세를 기록했지만 수출생산비용 지수(110.3→112.1)의 상승폭(1.7%)이 더 커 결국 채산성은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수출가격 지수가 오른 것은 원달러 환율이 4.0%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달러

표시 수출가격의 상승폭이 5.6%로 더 컸기 때문이다.

반면에 수출비용은 공산품 및 기타원자재 가격 상승지수 등으로 수입자재비 1.2%, 국산자재비 1.8%, 금융비용 3.8%, 인건비 1.9% 상승해 전체적으로 작년 동기대비 1.7% 올랐다.

수출가격 하락과 수출비용의 상승이 동시에 진행되면 최근 몇 분기와는 달리 1~4분기에는 수출가격이 상승함으로써 채산성의 악화 폭을 상당히 줄일 수 있었다.

전년 동기 대비 채산성은 2005년 2.4분기 -9.5%를 바닥으로 점차 개선돼 작년 3~4분기에는 -1.4%로 향상됐다 4~4분기에는 -3.1%로 다시 악화됐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상반기 수출이 두 자릿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지속적인 환율하락에 따른 채산성악화 추이가 개선되지 않아 수출기업의 경영상태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이마트도 美 쇠고기 판매 26일부터 전국 78곳 매장

롯데마트에 이어 신세계 이마트에서도 값싼 미국산 쇠고기 판매를 시작한다.

신세계 이마트는 지난 20일부터 일부 점포에서 미국산 쇠고기 테스트 판매를 시작한 데 이어 오는 26일부터 전국 107개 매장 가운데 소형을 제외한 78곳에서 본격 판매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판매는 2003년 12월 이후 43개월만이다.

이마트의 미국산 쇠고기는 한우 1등

급에 해당하는 초이스급 이상으로, 테스트 판매기간에 냉동육 80kg을 판매한 뒤 이달말 냉동육 120kg을 추가로 들여올 예정이다.

이마트는 또 냉동육에 이어 냉장육도 들여와 내달 중순 이후부터 판매할 계획이다.

냉동육 판매부위와 가격은 100g당 진갈비살이 3천80원, 갈비본살이 2천280원, 알목심과 목심이 각 1천250원, 부채살이 1천980원이며, 목심은 불고기용 또는 샤브샤브용으로, 나머지는 구이용으로만 판매한다. /연합뉴스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당첨자 수
04 19 20 21 32 34	43	
등위	당첨금(원)	
1	6개 숫자 일치	1,234,542,375
2	5개 숫자+보너스 숫자 일치	45,723,792
3	5개 숫자 일치	1,322,134
4	4개 숫자 일치	54,286
5	3개 숫자 일치	5,000

등위	당첨금(원)	당첨번호
1	10억	7조 506410
2	5억	7조 506409
3	1천만	7조 506411
4	1백만	1등과 조가 다른 번호
5	1만	7조 07447
6	각조	128
7	각조	89
	각조	02
	1천	2
	각조	3

'新三粉 사건' 실체 드러나

63년 '시멘트·밀가루·설탕값' 담합 사건과 유사 이번엔 밀가루·세제·설탕값 담합 폭리 취해

'밀가루와 세제에 이어 설탕까지...' 대표적인 생활필수품인 이들 3개 제품의 담합사실이 지난해부터 차례로 적발됨으로써 1963년 '삼분(三粉) 폭리사건'에 비견되는 '신삼분(新三粉) 담합사건'이 실체를 드러냈다.

담합에 가담했던 기업들은 장기간에 걸쳐 치밀한 수법으로 합의를 통해 가격을 인상하고 시장 출시물량도 조절해왔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의 뒤통로 돌아왔다.

◇신삼분 사건 터졌다=공정위는 작년 초부터 밀가루와 세제에 이어 설탕 제조업체들의 담합혐의에 대해 조사를 착수, 과거 삼분사건에 버금가는 신삼분사건이 터질 것이라는 추측을 불렀다.

삼분사건이란 1963년 시멘트와 밀가루·설탕 등 3개 품목을 생산하는 소수의 독과점 업체들이 담합을 통해 가격을 인상해 폭리를 취했던 사건을 말

한다.

당시 10여개 밀가루 업체들은 담합을 통해 가격을 당시 고시가격의 3배까지 인상해 100억원 이상의 폭리를 취했다. 독과점을 형성했던 설탕과 시멘트업계 역시 고시가격의 3~4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가격을 조작했고 세금까지 포함해 엄청난 이익을 챙겼다. 이로 인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독과점 문제가 국민의 관심을 끌게 됐고 우여곡절 끝에 공정거래법이 탄생하는 단초가 되기도 했다.

공정위는 작년 3월 밀가루 물량과 가격을 담합한 대한제분·동아제분·CJ·한국제분·영남제분·대신제분·삼양사·삼화제분 등 8개 업체에 과징금 434억1천700만원을 부과하고 6개 법인과 대표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작년 10월에는 LG생활건강·애경산업·CJ·CJ라이온 등 4개사가 8년여에 걸쳐 세탁·주방세제가격을 담합한 것을 적

발해 4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련자들을 고발했다.

밀가루와 세제에 이어 이번엔 CJ·삼양사·대한제당 등 3개사의 설탕가격 담합까지 적발됨으로써 작년부터 관심을 모아왔던 3대 생필품의 담합사건이 매듭지어진 셈이다.

◇CJ는 3건, 삼양사는 2건씩 가담=CJ는 공정위가 작년부터 차례로 적발한 이들 3개 제품의 담합에 모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으나 자진신고나 조사업조를 통해 과징금을 감면 받고 고발을 면하는 등 제재를 피해갔다. CJ는 이번 설탕담합건에서도 공정위에 자진신고하고 조사에 협조해 과징금의 50%를 감면받고 검찰고발도 피했다.

삼양사도 밀가루 담합건에 이어 이번 설탕 담합사건에도 가담한 점이 적발됐고 밀가루 담합건 당시 조사조로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한 업체가 2~3개 품목에서 중복적으로 담합에 가담하고도 자진신고해 제재를 피하는 행위가 과연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연합뉴스



비엔나의 삼성 LCD 디스플레이
삼성전자는 21일 연간 800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오스트리아 비엔나 '쾨플러 궁전'에 LCD 디스플레이를 설치, 삼성의 세계적인 브랜드를 홍보하고 있다. /연합뉴스

夏鬪 장기화 조짐 금속노조 이번주부터 파업수위 높일듯

연세의료원과 이랜드 노사갈들이 진정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내 최대 산별노조인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이번주부터 파업 수위를 높이는 등 노동계의 여름철 파업 투쟁이 장기화,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2일 노동계에 따르면 금속노조는 이번주부터 산별중앙교섭 정취를 위해 벌이고 있는 부분파업 수위를 한층 높일 계획이다.

금속노조는 지난 18~20일에는 사업장별로 2~6시간씩 부분파업을 벌였으나 23일부터는 파업 찬반투표에 참여했던 17개 지부 185개 지회(조합원 8만6천967명)에서 6시간씩 파업을 벌일 예정이다.

금속노조는 23일부터 27일까지 사업장별로 파업을 벌인 뒤 여름철 휴가 시

즌이 끝나는 8월 중·하순에 다시 파업을 벌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8월 중순에는 지방별 교섭을 이유로 파업에 불참한 현대자동차지부도 합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산별교섭을 둘러싼 노동계의 갈등이 고조될 전망이다.

이달째 파업을 벌이고 있는 연세의료원 노조의 파업도 장기화되고 있어 이 병원을 이용하고 있는 환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파업 장기화로 연세의료원 산하 신촌, 영동, 용인 세브란스 병원, 광주 정선강병원 등 4개 병원은 신규환자를 받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연합뉴스

주가 2000 눈앞 눈길 끄는 종목 시총 28위 현대중 5위 도약 의료정밀·기계업종 상승세

코스피지수 500에서 1,000사이에서 답답한 박스권 등락을 거듭하던 증권시장이 2005년 2월말 1,000선을 넘어선 뒤 되돌리지 않고 꾸준한 상승세를 펼친 끝에 최근 '꿈의 지수'인 2,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22일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005년 2월 28일부터 지난 20일까지 2년4개월여 사이 시가총액 28위였던 현대중공업이 5위로 도약하는 등 시총 상위종목과 그룹별 시총 순위변화가 활발하게 일어났으며, 업종별로는 의료정밀과 기계업종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시총 상위종목 중 1위에서 4위까지인 삼성전자와 POSCO, 한국전력, 국민은행 등 4개 종목은 그동안 굳건하게 자신의 순위를 지켜온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삼성전자는 2005년 2월말 지수 1,000을 돌파할 당시 전체 유가증권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16.54%나 꽤 절대적인 황제주로 인식됐던 것에 비해 최근엔 전기전자 업종이 부진을 면치 못하면서 채 9.92%로 급락한 것이 눈길을 끈다.

그러나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보통수 기준으로 77조6천267억원에서 97조3천648억원으로 급증, 100조원을 바라보고 있으며 우선주까지 합칠 경우 이미 100조원을 훌쩍 넘어선 상태다.

5위권부터는 순위다툼이 치열했다. 2005년 당시 28위였던 현대중공업은 시총이 3조8천152억원에서 28조3천860억원으로 무려 644.02%나 불어나면서 5위로 경총 뛰어올랐다.

6위와 7위인 신한지주와 우리금융도 10위와 14위에서 5계단, 7계단 올라섰다. 8위인 하이닉스도 15위에서 7계단 도약했다. 또 당시 12위였던 SK는 10위로 2계단을 올라왔다. /연합뉴스

CEO 90% "과거의 성공, 성장 장애물"

국내 최고경영자(CEO) 중 90%는 과거의 성공이 기업의 성장을 방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16~20일 최고경영자와 임원진 대상 사이트인 세리CEO 회원 3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9.5%가 과거의 성공방식이 기업의 성장을 방해할 수 있다고 답했다.

CEO들의 54.4%는 실제로 과거의 성공방식으로 인해 사업의 실패나 퇴보를 경험해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과거의 성공방식이 새로운 사업에 방해가 되는 이유에 대해 CEO들의 58.7%는 시장의 요구가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응답자의 35.4%는 자신과 조직을 더욱 안주하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밝혔고 4.3%는 더욱 강력한 경쟁자가 출현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CEO들의 60.3%는 과거에 엄매이지 않고 새로운 성공방식을 찾기 위해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함께 일합시다

Recruiting Gwangju Network
062.JOBKOREA.CO.KR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및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알리안츠생명	금융 자산관리사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24	062-375-2248
금호생명	금호생명 직영 광주 TM센터 상담원	고졸/경력무관	3800~4000	07/24	062-360-5201
금미보	자재구매관리사	고졸/경력1년	회사내규	07/25	062-946-7000
동우시스템	사무보조, 프로그래머, 컨설팅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26	062-945-3753
코리아노무법인	노무법인(노사관리)동직원	대졸/경력무관	1800~2000	07/26	062-526-0006
가림건설(주)	업무보조 정규사원	초대졸/경력1년	회사내규	07/26	062-365-9400
매일상품(주)	정규직 세무/회계 담당사원	대졸/경력무관	2,300~3,000	07/28	061-752-3331
한일투브(주)	품질부 실험실 근무요원	고졸/경력무관	1400~1600	07/28	062-958-3420
이오일렉트로닉	신인파키프로젝트 프로그래머/별면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28	062-228-8000
태인상사(주)	가전제품조립 생산직	고졸/경력무관	1600~1800	07/30	062-515-4565
햇볕	일부직 H/OK 한국총판 대신상사 경리부 직원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30	02-3474-0070
그린텔	소필물 고객 관리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31	062-375-5998
(주)그린텔	KTF광주점서비스센터 정규인바운드 상담원	초대졸/경력무관	1800~2000	07/31	042-223-4900
에비디산업개발(주)	금속절단작업기 조작원	고졸/경력1년	2600~2800	07/31	031-498-9778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